E-K

지난 3분기동안, 통신사업의 발전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무선광대역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했다. 구조비용을 줄이는데 힘 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로인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부기별 결과를 당성했다. 무선사업부에서는 회사 업무 환경에 최적화 되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용 LTE를 선보였고 만 24세 이하 고객들에게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Y24”또한 소개했다. 데이터 생성의 모바일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화 된 서비스를 통해, 마케팅에서 보여준 리더십 덕분에 순증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영한

지속되는 불황으로,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하락하는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4대 자동차 제조사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현금할인, 저융자 및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을 다시 유치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7만8989대에 그쳤다. GM 대변인은 “연초 판매 증가를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국내 수요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영

Commercialization of painless injection technology comes near to medical device companies in the U.S and Japan. “Painless injection” will be introduced. According to reports, the new technology may feel little pain by using a method of placing a tiny needle called ‘micro needle’ on skin like a plaster, administering into body. With the new technology, children are expected to be given injections relatively easier than before. Additionally, a self-administered injection would be possible for patients without going to the hospital. Considering the rising demand for easy medication due to the aging of patients, development of these injec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future.